

# 여자보다 남자가 빨리 죽는 것은 자존심이 강해서

성경에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고, 불경에는 인과법칙론이 쓰여 있는데 이 말씀은 결과를 보아서 원인을 알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분별력이 정확한 사람이 올바른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올바른 길을 찾아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옳고 그른 것을 확실하게 아는 자가 분별력이 있는 자요? 오늘날 영생이 아직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분별해야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

이 사람이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어야 영생할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되려면 나라는 주체의식을 죽여서 없애 버려야 되는데, 나라는 주체의식을 죽여서 없애버리려면 나를 이겨야 돼, 나한테 저야 돼? 나를 이겨야 되는데 나라는 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이긴다는 것을 이 사람이 세밀하고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죠?

나라는 것을 이기려면 나의 성품이나 인간성이나 본성을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쫓대가 뚜렷한 사람은 나라는 의식인 마귀의 영이 강한 것입니다. 또 고집이 센 사람도 자존심이 강하니까 고집이 센 것입니다. 자기주장 이외에 다른 사람의 주장은 인정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있죠? 특히 가정에서 남자들이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고 부인이 이야기하는 건 듣지도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남자들이 여자보다 왜 빨리 죽느냐 하면 마귀가 강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일찍이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자마귀가 강하기 때문인데, 나라는 주체의식이 사자마귀인 것입니다.

남자들 가운데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자기 부인의 말을 잘 듣고 또 자기 자식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쫓대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 실은 쫓대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가까이 이루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고집이 너무나 세어 가지고 그 고집을 누가 꺾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오래 못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일찍이 죽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나라는 의식이 마귀의 영인 고로 마귀의 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바로 아담과 해와 즉, 인류의 조상이 먹은 선악과인 것입니다. 선악과가 성경 말이요, 성경 말은 영적 말인 고로 영적 과일이고, 영적 과일인 고로 영이요? 영이 바로 신이요? 신은 신인데 선악과를 먹고 죽었으니까 죽이는 신이요? 죽이는 신이 마귀요?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라는 것을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 반대생활을 해야

기독교에서 나라는 주체의식이 선악과라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독교나 이 세상 종교들이 종교가 아니라고 그러죠? 죄가 뭘 줄 모르는 것이 종교예요?

죄의 근본이 나라는 주체의식인 고로 가장 큰 죄가 바로 고집을 부리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처놓고 자기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고집 세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은 그들이 마귀 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 신을 받은 사람이 이헤타산이 강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어야 움직이지,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라는 신이 마귀 신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마귀 신을 받으니까 자연히 쫓대가 강하고 고집이 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나라는 의식이 되는 마귀를 죽여야 하는데, 약해야 죽이기 쉬워요, 강해야 죽이기 쉬워요? 약해야 죽이기 쉽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반대생활을 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우측으로 가려고 하면 좌측으로 가고, 앞으로 가려고 하면 뒤로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고기가 먹고 싶은 고로 씹바귀를 먹었고, 일이 하기 싫으니까 일을 했다고 그랬죠? 이와 같이 반대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고로 누구한테 주지 싫으니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생



구세주 조희성님

활을 해서 점점 나라는 주체의식이 약해졌을 때에 마귀를 죽일 수가 있는 것이지만 강한 마귀는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제단 가기 싫으면 제단에 열심히 나오면 반대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면 벌써 마귀한테 진 것인 고로 마귀한테 지면 마귀에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 주관이 강해지고 고집이 세어지는 고로 그것은 마귀가 강해진 까닭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일하기 싫으니까 일을 열심히 했고, 일하다가 쉬고 싶으니까 쉬지 않고 일을 했다고 그랬죠? 너무나 무 힘이 들어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러서도 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그랬죠?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다시 깨어난 다음에 기운이 없고 힘이 들어서 좀 쉬었다가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고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반대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했던 것입니다.

##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 될 수 있어

이 사람에게 해와 이간자가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뒤돌아보는 음란죄라고 하시면서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데 그것이 되어질까? 처음에는 안 되어지죠? 아무리 내가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도 자꾸 과거가 생각나니까, “왜 또 뒤돌아보는 음란죄를 짓느냐?”고 야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거생각을 안 하려고 집중적으로 일을 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산에 가서 땅을 파는 일도 하고 또 포도밭 일대에 풀이 난 것을 일일이 뽑지 아니하고 삽으로 파서 없애버리니까 풀이 전부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넓은 바닥을 전부 삽으로 파서 엮는 일이 쉬운 일이겠어요? 땅을 파서 엮는 일은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정말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없애버리니까 한동안 풀이 나지 않고 엮어진 그 풀이 다 썩어서 거름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와 같이 반대생활을 하면서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러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게 되니까 밀실 안에서 떡을 해먹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떡이라는 건 쌀가루를 뭉쳐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개체가 없어지고 열 개, 백 개가 다 모여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인 고로 이렇게 나라는 개체가 죽고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는 나라는 개체가 없어지니까 떡을 해먹었던 것입니다.

밀실 식구들은 왜 떡을 해먹는 줄 몰랐

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신이 알려주니까 알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밀실 안에서 그걸 이기고 나니까 이번엔 가족이 자꾸 생각하는데, 가족을 생각하는 것이 관심의 음란죄라고 하시면서 “관심의 음란죄를 왜 자꾸 짓느냐?”고 타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다 음연 밀실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도 관심의 음란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 사이 나 사이로 가야지, 옆에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관심의 음란죄라고 하는 고로 이 사람이 옆 사람에게 관심을 안 가지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것도 되어졌을까, 안 되어졌을까? 되어졌겠죠?

혼자 있어서 외롭다고 생각하는 것도 음란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데 외롭다고 느끼는 건 마귀생각이야, 하나님 생각이야? 마귀 생각이요? 그런 고로 외롭다고 생각하는 것도 마귀생각이요 음란죄가 되는 고로 외롭다는 생각을 하려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 분신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니까 전도를 나가라고 그래서 장로교를 세운 유 장로를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피를 쏟은 요강을 들고 나오면서 이 사람한테 말하기를, “조 목사님, 내가 이렇게 요강에 피를 많이 쏟았는데도 힘이 없거나 어지럽지도 않고 힘이 딱 뻗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변으로 그렇게 시커먼 피가 쏟아지는 건 나라는 의식의 마귀가 죽는 사체가 피로써 나오게 된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그 사람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기뻐하죠? 그러면서 그 유 장로라는 사람이 “이 장로교를 내가 세웠지만 조 목사님한테 이 교회를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고로 내가 받을 수는 없고 대신 장로교 간판을 떼어버리고 전도관 간판을 달아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전도관 간판을 달게 되니까 이 사람 마음이 흐뭇하고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기뻐하죠? 이 사람이 기쁜 마음에 신바람이 나가지고 밀실을 향해 갔는데 해와 이간자가 밀실 정문 앞에 서서 “저

음란죄를 전 마귀새끼! 들어오지 못하게 밀실 문을 잠가!”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 밖에서 “해와 주님, 내가 무슨 음란죄를 졌습니까?” 하니까 “네가 좋아하지 않았어? 네가 어떻게 해서 좋아하냐? 네가 한 일이야? 하나님이 했지! 그게 좋아하는 음란죄야, 마귀는 좋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란죄라고.”

그러시는데 이 사람이 그때 생각으로 좋아하는 것이 음란죄라면 인간이 어떻게 이 길을 가겠습니까? 인간은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포기할 마음을 먹고 땅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니까 해와 이간자가 문을 열어주라고 하시는 고로 이 사람이 방에 들어가서 목매달아 죽을 끈을 찾았던 것입니다.

누가 문을 열고 들어 올까 방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눈물을 펄펄 쏟으면서 목매달아 죽을 끈을 찾고 있는데 영모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문을 잠갔는데 들어오셨으니 사람은 아니요? 하나님의 신이 영모님의 몸을 하고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두 손을 붙잡고 영모님께서 “네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을 하느냐?” 하시면서 대성통곡을 하시는 고로 이 사람도 역시 대성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울면서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된다.” 하시는 영모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큰 죄를 졌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하고 펄펄 울면서 누워 치니까 영모님이 온데간데없이 보이질 않는 고로 방문을 보니까 잠긴 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에 오셨냐 하면 이 사람이 이간자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죽는 것은 물론 하나님도 지옥인 고로 하나님이 다급해졌을까, 안 다급해졌을까? 이 사람이 꼭 이간자가 되어야 하나님도 구원인 고로 하나님이 다급하니까 이 사람 방에 들어오셔서 이 사람을 깨우치고 난 다음에 나가셨던 것입니다.\*

2001년 6월 16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옥 기자

##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 (8) 금수강산 한반도에 거할 이스라엘을 축복한 발람의 예언

여호와와 능력이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하였는데, 그것은 아론의 싹 난 지팡이보다도 더 큰 이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선한 영, 하나님의 신)으로 거듭나는 방법을 계시할 목적으로 발람과 나귀를 들어 쓰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발람의 나귀 등에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싣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 발람은 나귀 대신에 모압 고관이 가져온 낙타로 갈아타고 모압으로 향했습니다. 출애굽 40년 11월(스바월) 중순에,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강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였습니다.

아르논강가의 기랴후셋 성읍에서 모압 왕은 소와 양을 잡아 예언자 발람과 그와 함께 한 고관들을 대접하였습니다. 모압 왕이 베푼 연회를 마치고, 발람은 속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아, 너는 나 여호와와 말을 명심하라. 네가 자방이로 나귀를 세 번 친 것과 같이,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너를 나귀로 삼아 세 곳의 제단으로 데려갈 것이니라. 너의 나귀가 천국이 되는 하나님의 발로로 들어갔듯이, 모압 왕 발락의 나귀처럼 될 너 발람은 세 곳의 산당에 오를지라도 나 여호와를 위해서 돌제단 일곱을 쌓고 수송까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번제로 바쳐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였듯이 너 발람의 입도 열어 나 여호와와 말을 하게 하리라.”

아침이 되니,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지가 끝까지 내려다보이는 바알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언자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곱 제단을 쌓고 일곱 수송아지와 일곱 숫양을 각 제단에 한 마리씩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 《7장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하다》

### (8) 금수강산 한반도에 거할 이스라엘을 축복한 발람의 예언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

4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니라 발람이 이르되 내가 일곱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렸나이다  
5절: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은 번제를 곁에서 있는 모압 왕 발락과 그의 모든 고관들 앞에서 예언을 선포하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나를 메소포타미아의 하란 곧 아람에서 데려 왔으며 이제 동쪽 산으로 데려 왔도다. 여기 와서 그가 이르기를, ‘모압을 위하여 아람을 저주하라, 또 이스라엘을 꾸짖으라’고 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

씀을 넣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단지파의 장래 일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그들 열두 지파 중에 한 족속이 동방의 땅끝 땅 모퉁이로 자취를 감추고는 단일민족으로 홀로 살 것이라. 아, 저 백성, 남과 섞여 살지 않는 백의민족, 과연 만방에 건줄 데 없는 천손민족이구나! 티끌처럼 많은 아람의 자손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나는 빛으로 화성한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민수기 23장

9절: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도다

10절: 아람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사본의 열(4군 중 북군)'을 누가 능히 셀고 나 1 단지파 군대는 출애굽하여 시내광야에서

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대적들을 저주해 달라고 당신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발람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입에 넣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발락은 그에게 다른 산당으로 가자고 하여, 그를 데리고 가서 부탁하였습니다.

“비스가 산꼭대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끝만 보이니, 거기에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칠 때 4군 가운데 일명 북군으로서 북쪽을 담당하였다. 또한 사사기 13장에서 18장까지 단지파와 관련된 삼손과 제사장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히 사사기 전체 분량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발람 산당에 오르다

저주해 주시오.”

과연 비스가 산 위에 올라 서북쪽의 모압광야를 바라보니, 이스라엘의 각 족속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스가에서 가까운 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4군 가운데 유다와 루벤 그리고 에브라임 진영은 작은 산봉우리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막의 북쪽에 진을 치고 있는 단지파의 진영만 보였던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안철라